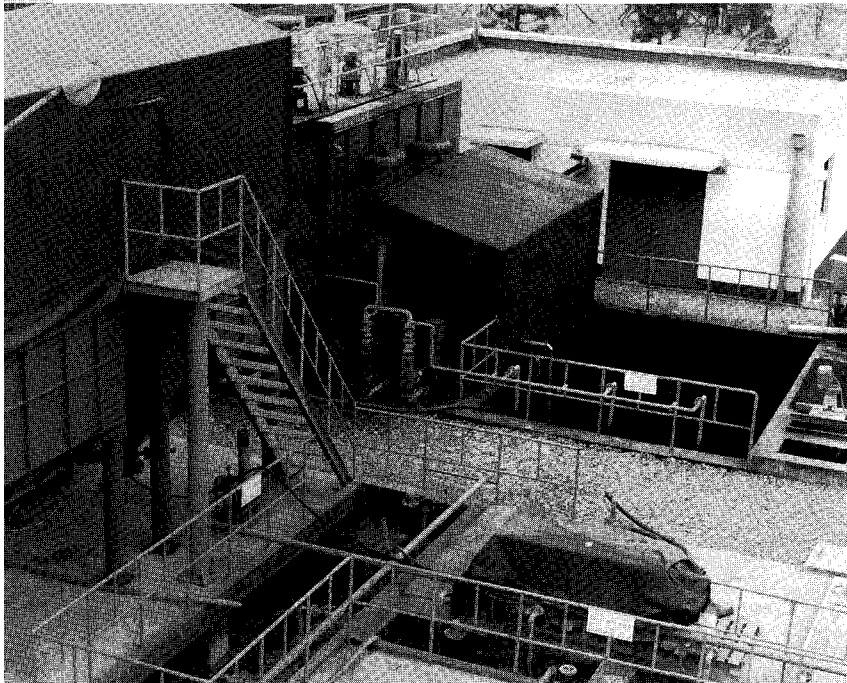


환경관리는 전사원의 공동업무입니다

■ 편집부



등을 증설했다.

물론 지난해에도 슬릿지저장조와 탈수기설치 그리고 저장조의 증설에 415,000천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넉넉한 저장조와 슬릿지 저장조가 꼭 여유있어 보였다.

폐수처리에 있어 본사의 특징은 오염물질배출기준치를 50%이하로 처리후 방류하는 것. 특히 고도처리단계에서 사용하는 활성탄분말을 전처리와 후처리에 쓰고 있다고 한다.

첨단 측정장비가 갖춰져있는 실험실에서도 이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은 유감없이 나타나 있었다.

또한 본사는 산업폐기물의 분리보관과 함께 상옥시설설치로 오염발생량의 극소화에도

도시 는 작을런지몰라도, '창원'의 도로는 시원스러웠다.

올해 마지막으로 찾은 '현장'은 바로 대우중공업(주) 창원공장 제2공장이다.

이곳 창원공장은 '76년도에 가동을 개시했지만, 그 역사는 이미 '37년에 설립된 조선기계제작소로부터 비롯된다. 가동 이후 그동안 정밀공업진흥의 탐, 품질관리대상을 수상하는

등 탄탄한 성과도 쌓았다.

이곳 현장의 방지시설들은 제2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던 '84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돼 왔다.

먼저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84년에 199,000천원을 투자, 스크린, 유수분리조, 환원조, 반응조 등의 시설을 갖췄고 2차로 '85년에 215,000천원, 이듬해에는 227,650천원을 들여 저장조, 슬릿지저류조, 유수분리기

〈표〉 처리전후의 배출량 및 성상

항목	구분	처리 전	처리 후
		98.2	100.0
P H		3.5	7.0
C O D		150	30
S S		179	20
C r ⁺⁶		4.0	0.01
C u		4.0	0.01
Z N		3.5	0.5
N-H		6.0	1.0
F		3.0	1.0
F e		2.0	0.01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내년초에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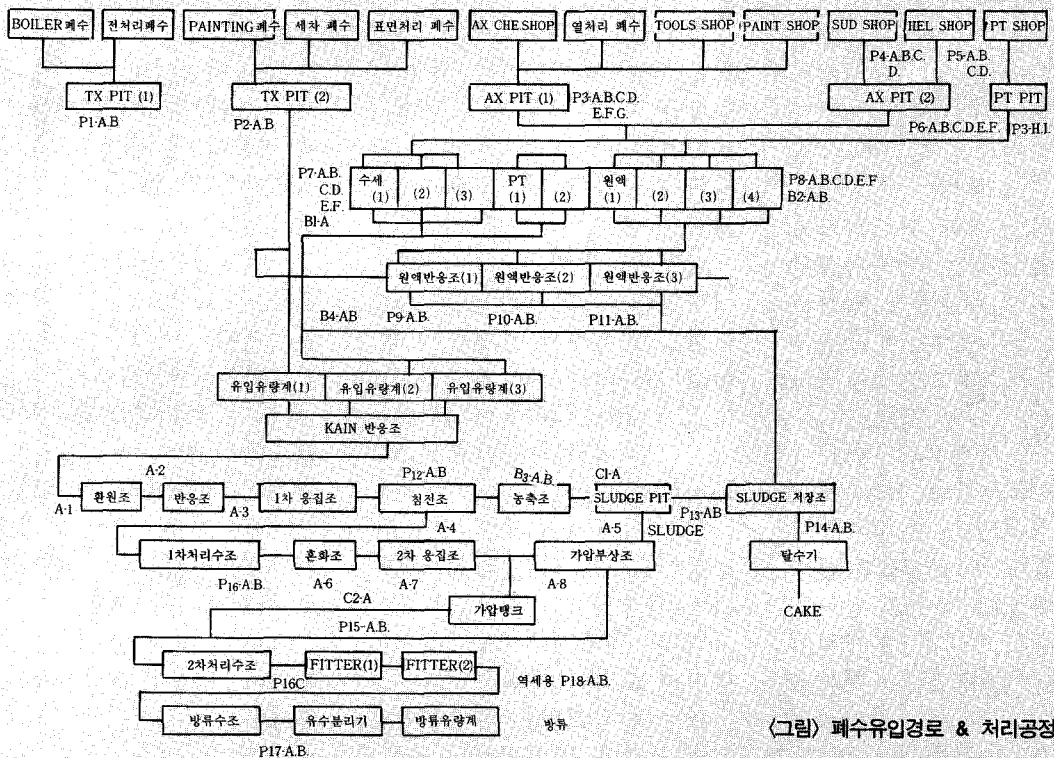
한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현황을 보면 우선 지난 '86년과 '88년에 세정집진시설과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는데, 총 870,700천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지난해엔 47,996천원을 들여 흡착에 의한 시설과 원심력 집진기(M/C)를 갖췄다.

이들 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은 약품비 5,161,000원, 슬러지 처리비 1,142,000원 등을 포함해 매달 9,10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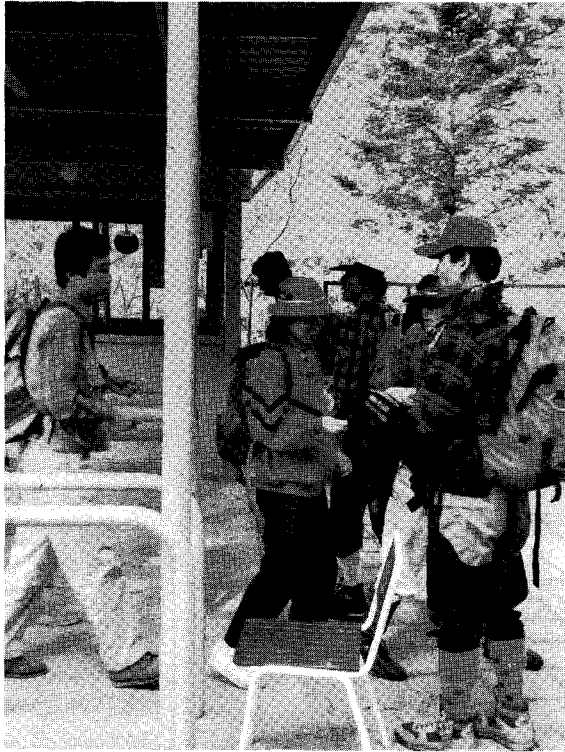
환경·열관리부 문종욱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본사는 대기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에 대해



▲ 좌측부터 김명배·문종욱(차장)·신도재·염인열환경관리인



〈그림〉 폐수유입경로 & 처리공정도



▲ 본사의 산악회 회원들이 썩는 비닐로 만든 쓰레기 수집봉지를 등산객에게 배포하고 있다.

서 각 본부별 담당자를 설정하고 매달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여 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철저한 환경관리와 더불어 본사에선 '전사환경관리규정'의 사내표준을 제정하여 각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종업원에 대한 사내홍보교육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운동 캠페인도 여러차례 실시한바 있다. 지난 9월엔 공장에 인접해 있는 하천의 정화운동도 벌였고, 일상생활에서의 오염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구내식당에서의 음식물안남기 운동도 전개 했다고 한다.

또한 썩는 비닐로 만든 쓰레기 수집 봉지 2만매를 제작, 사내 산악회회원들이 속리산과 내장산에서 등산객에게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환경관리경력이 2년이라는 신도재환경관리인은 남들이 외면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일해야 하는가라는 자신과의 갈등이 있을때에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하는 생각으로 극복해왔다고 한다.

그는 이제 이 나라의 금수강산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환경인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진솔하면서도 든든한 현장의 소리가 아닐수 없다.

또한 신관리인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결코 말이나 구호

“

폐수처리에 있어 본사의 특징은 오염물질배출기준치를 50%이하로 처리한후 방류하는 것. 특히 고도처리단계에서 사용하는 활성탄분말을 전처리와 후처리에 쓰고 있다. 처리장 바로옆, 첨단 측정장비가 갖춰져 있는 실험실에서도 이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은 유감없이 나타나있었다.

”

만으로 하는것이 아님에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기도.

환경보전은 탁상공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력과 '나'보단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의식 그리고 '모두'의 협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동의 작업이기에 그의 말은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드러나지 않고, 또한 내세우지도 않는 이들의 '노고'야말로 환경보전의 초석.

이곳 환경가족들의 배움을 받으며, 12월의 현장을 뒤로했다. ◀